

장흥군, '산림소득사업' 총력 추진

임업산촌분야 심의위원 6명 참석 정책심의회 개최 215건 18억 7000만원 사업비 확정...소득 증대 기여



장흥군은 9일 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 임업산촌분야 심의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산림소득사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3년 산림소득증대사업 및 청정임산물이용 증진사업 신청 임가를 대상으로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안건을 상정하고 사업신청자 적격여부, 사업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심의했다.

심의회결과 ▲산림소득증대기반조성사업 141건에 7억 8천만원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 74건에 11억원 등 총215건에 사업비 18억 7000만원이 최종 선정됐다.

표고원목 지원사업과 포장재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량이 많아, 산림소득분야 내 타사업 지원여부 등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해 선정하였다.

오는 2월 24일까지 교부신청서 작성을 시작으로 2023년 임산물 등 산림소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장흥군의 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단지향·규모화에 힘쓰고, 임업인 편의를 위해 산림소득사업 신청 절차 등을 의견 수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 기자



강진읍 강진군수가 14일 칠량면 동백마을을 방문,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참여한 가구를 둘러보고 있다.

강진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28일까지...주택 신축 시 최대 2억 원에 고정금리 2% 적용

"오래전부터 전원주택을 짓는 게 꿈이었는데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초 저리로 융자 받아 지을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지난해 칠량면 주택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기 위해 강진군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참여한 유재인·김향자 부부를 찾았다.

유 씨 부부는 지난해 8월, 멀리 만덕산 부가 아름답게 펼쳐진 동백마을에 있던 기존 집을 허물고 마치 카페를 연상케 하는 집을 지었다. 대지 820㎡(약 250평), 건평 115㎡(35평) 규모에 2층 복층 구조로, 1층은 거실과 방, 창고와 있고 2층에는 넓은 방으로 구성되었다.

공사는 8월에 시작해 11월 초에 끝났다. 내진 설계된 아연도금의 경량철골 구조물을 기본으로 하고, 바닥은 장모님의 건강을 고려해 원적외선이 나오는 전기 필름을 깔았다. 주택 전면이 통유리로 돼 있지만, 겨울철 추위 걱정은 없다. 서남향으로 지어 보온 효과가 뛰어나고, 7cm 두께의 이중 접합 유리창으로 외풍을 막았다.

층고 8m의 웅장함과 현대적 감각의 세련미가 동시에 묻어나는 이 집은 원래 부인 김향자 씨의 어머니가 기거하던 곳이었다.

"원래부터 장모님이 살고 계셨고, 아내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광산 김씨 종가로 300년 된 터여서 처음에는 주택을 허무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조금이라도 편안한 환경에서 사실 수 있도록 직접 짓게 됐습니다."

유 씨 부부는 나이 드신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더 쾌적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새로 집을 짓기로 결심하고,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유 씨 부부

가 지원받은 금액은 1억 원. 2% 고정금리로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조건이었다. 부지를 제외하고 총 건축비가 2억5000만 원가량 들었으니 40%를 지원받은 셈이다.

지난해 유 씨 부부처럼 농촌주택개량사업 혜택을 받은 주택은 모두 33개소다. 강진군은 올해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를 모집 중에 있다. 농어촌 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기 희망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증축이나 수선의 경우 1억 원이며, 신축이면 2억 원까지 가능하다. 2% 고정 또는 변동 금리가 적용된다. 만일 사업 대상자가 만 40세 미만 청년이라면 고정금리가 1.5%로 낮아진다.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가운데 선택하면 된다. 사업에 선정되면 28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및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올해 98개 사업장이 마련돼 있으며,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2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3월 3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강진군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철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사업량은 총 85동 예정으로, 동당 13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빈집 리모델링 1000세대, 신규마을 1000세대 등 총 2000세대의 전원주택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병영면의 빈집 4개소를 활용해 마을 호otel을 조성할 방침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진도아리랑물' 초성 퀴즈 SNS 경품 이벤트 개최

진도 특산품·모바일 커피 쿠폰 등 50명

진도군은 '진도아리랑물' 초성 퀴즈 SNS 경품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초성 퀴즈는 진도군이 직접 운영하고 진도군수 품질을 받은 제품 등을 판매하는 보배섬 진도군 소평물의 이름을 맞추는 이벤트로 초성 힌트가 제공돼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다.

이벤트는 오는 19일(일)까지 진도군 SNS를 방문해 친구 추가 후 퀴즈 정답을 댓글로 달아 캡처해 네이버폼에 캡처 이미지와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참여자 중 5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진도 특산품과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2일 진도군 인스타그램에서 발표하며, 경품은 개별 발송한다.

진도군 기획홍보실 관계자는 "진도군에서 직접 운영해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진도아리랑물을 홍보하기 위해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며 "품질 좋은 진도군 농수특산품을 홍보하고 보배섬 진도군의 관광지를 소개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완도군, 소통 메신저 '군민 SNS 기자단' 발대식 개최

해양치유·전남체전 등 대규모 행사 및 군정 소식 생생하게 전달

완도군은 지난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3 제4기 희망완도 군민 SNS 기자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신우철 군수가 참석해 직접 위촉장과 기자증을 수여하고 군민 SNS 기자단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제4기 희망완도 군민 SNS 기자단에 선발된 기자단 29명은 20대~7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과 사진작가,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됐다.

기자단은 올 12월 31일까지 1년간 ▲군정 취재 ▲군 주요 행사, 축제 등 현장 취재 ▲해양

치유 체험 등을 통해 군에 관련한 다양한 소식을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토티 등 4개의 공식 채널을 운영하며 군정 소식과 행사·축제 등을 군민과 관광객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남체전 및 전남장애인체전, 슬로걷기축제, 장보고수산물축제 등 대규모 행사와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